

[이데일리]<“사시 합격 못했어도 로스쿨 안 갔을 것”>

사법시험 57회 최고령 합격자 김상선씨 인터뷰
아버지 탓에 그만둔 공부 아버지 때문에 다시 시작해
“사시존치...누구나 합격 못해도 누구에게나 길은 열어야”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사람은 나이 마흔을 넘겨야 비로소 세상 일에 미혹되지 않고 옳은 판단을 내린다고 했다. 불혹이라고 한다. 이 남자를 두고 한 말인 듯하다. 그 나이 넘겨서까지 한우물만 짚다. 사법시험 57회 최고령 합격자 김상선(41)씨 얘기다. 그는 16일 이데일리와와의 인터뷰에서 “나이 먹은 사람이 공부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나이 그 자체”라고 했다. 인터뷰는 그의 모교 동국대에서 진행했다.

1994년 법학과에 입학하면서 법조인을 꿈꾼 김씨.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미래를 확신하지는 않는다.

“사법시험에 합격한다고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요즘 법률시장이 얼마나 어려운데...” 걱정이 앞서는 모양이다. 사실 김씨는 중간에 법조인의 꿈을 접기도 했다. 2004년 위암과 간경화를 앓던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하면서다. 이듬해 2월 장례를 치렀다. 이후 마음이 쉬 잡히지 않았다. 마침 경제적으로도 궁핍했던 상황이었다. 전공을 살려 법률사무소에 사무장으로 취직했다. 적성도 맞았고 보람도 있었다. 그런데 평생 패배감에 젖어 살 것 같았다. 2001년 1차에 합격해본 터라 자신은 있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마음에 걸렸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 때문에 공부를 그만둔 걸 크게 속상해했어요.” 이게 돌아간 계기가 됐다. 2009년 35살 나이로 다시 고시원에 들어갔다.

쉽지는 않았다. 합격까지 꼬박 6년이 걸렸다. 20년 넘도록 합격의 영광을 허락하지 않은 사법시험. 애증이 엇갈릴 법도 하지만 김씨는 단호하게 ‘사시존치’를 주장한다. “누구나 합격할 수 없다고는 해도 누구에게나 길을 열어놓는 게 중요하죠. 도전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다는 것이 사법시험을 유지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는 “완벽한 제도가 없는 것처럼 로스쿨 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대안으로 사법시험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씨는 만약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더라도 로스쿨은 안 갔을 것이라고 했다. “로스쿨을 나오더라도 소위 ‘줄 없고, 백(배경) 없는’ 사람은 공직이나 대형 로펌에 들어가는 게 어려운 걸 주변에서 봤어요. 나처럼 아무것도 없는 마흔 넘은 사람에게 (로스쿨은) 실질적인 길이 아닌 것 같았죠.”

최근까지 ‘고시 낭인’으로 살아온 그는 “오래 공부하는 게 흠이라는 것은 법조인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라고 했다. “의사가 전문으로 성장하는 데 10년이 넘게

걸려요. 법조인은 사회적으로 인간을 죽이고 살리는 직업입니다. 법조인을 빨리빨리 뽑을 게 아니라 시간을 두더라도 제대로 뽑아야 합니다.” ‘로스쿨을 도입하면 고시 낭인이 사라진다’는 데 대해 “고시생들도 열심히 삽니다. 그들은 ‘고시 낭인’을 위해 어떤 고민을 했나요. 사시폐지의 핑계에 불과하죠.”

이렇듯 자의 반 타의 반 고시 낭인으로 살아온 김씨는 어쨌든 대기만성형이다. 집안 내력이다. 세 살 터울의 친형 김희선(44)씨는 2년 전 55회 사법시험에 42세의 나이로 합격했다. 동기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았으나 생일이 빨라서 최고령 타이틀은 아쉽게(?) 놓쳤다. 동생 김씨는 역대 최고령 합격자 가운데 최연소다.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갈수록 줄고 있어서 응시자 나이 자체가 낮아진 탓이다. 연수원 입소 전에 가족여행을 계획한 그는 학교 고시반에서 함께 공부한 마흔에 가까운 동생이 걱정이다. “로스쿨 갈 형편이 안되는 친구라서 내년엔 합격해야 하는데...” 내년 1차 시험을 끝으로 사법시험은 폐지된다.



[미디어동국]<2015년도 행정고시 법무행정 수석 합격한 김성희(법학 10) 양>

2015년 행정고시(5급 행정)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법무행정 직렬에서 우리대학 김성희 학생이 수석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법무행정직은 전통적으로 남성이 강세를 보여온 직렬이다. 또한 해당 직렬의 특성상 합격자는 30대가 주를 이룬다. 따라서 20대 초반 김성희 양의 합격이 더욱 눈에 띈다. 단풍이 완연한 가을의 동악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가족들은 떡을 돌리고, 가족 잔치 준비를 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2차 시험에서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감이 잘 나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합격한게 맞구나 싶어 기쁩니다.” 설레는 목소리로 합격 소감을 전한 김성희 양. 그녀는 실제로 시험을 치르고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까지 2016년 행정고시 2차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교내

고시준비반에 들어가 공부를 하고 있었다.

“가족들은 떡을 돌리고, 가족 잔치 준비를 할 준비를 하고 있더라구요. 저는 2차 시험에서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감이 잘 나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합격한게 맞구나 싶어 기쁩니다.” 설레는 목소리로 합격 소감을 전한 김성희 양. 그녀는 실제로 시험을 치르고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까지 2016년 행정고시 2차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교내 고시준비반에 들어가 공부를 하고 있었다.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 동약에서의 시간

“막연히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확실한 진로 설정을 못하고 있었어요. 법학과에 진학하여 공부를 하다 보니 법이 재미있어지기도 했고, 저와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행정법 수업이 가장 재미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행정고시 법무행정 직렬을 준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녀는 행정고시에서 선택과목을 선택 할 때에도 대학 수업시간에 재미있었던 ‘노동법’을 선택하였다. 학교에서 수강하였던 행정법, 민법, 노동법 등의 과목들은 진로 선택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고시 공부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김성희 양은 행정고시를 준비하기로 결정하고 법학과 교수님들을 찾았다. 교수님들께서는 그녀에게 실속 있는 조언과 독려를 전해주었다. “제가 진로를 결정하고, 실행하는데 교수님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상담을 해주시고 면접준비를 도와주셨던 김경제, 박민영, 김선정, 최봉석 교수님과 실제로 면접 직전에 모의 면접을 진행해 주셨던 과채기, 이창한, 송일호 교수님께 꼭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자신에게 맞는 공부방법 찾기

단기간에 좋은 성적을 거두며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을 물었다. 첫 번째 비결은 ‘선택과 집중’이었다. 그녀는 1차 시험에 합격하자마자 학교를 휴학하고 신림의 고시촌으로 향했다. 공부에만 집중하고 싶어하였다. “제가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잠’이에요. 저는 아침잠이 많은 편이라 처음에는 다른 고시생들이 이른 아침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들과 비교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보통 9시에서 10시 사이에 공부를 시작했는데 대신 다른 학생들이 자리를 떠나도 독서실이 끝나는 12시 30분 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는 시간 동안은 누구보다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구요.” 쉬는 날도 마찬가지로였다. 공부가 잘 되지 않는 날은 과감하게 휴식을 택했다. 대신 주말에도 쉬지 않고 평일과 같이 공부를 했다.

두 번째 비결은 ‘자기관리’였다. 김성희 양은 항상 6시

간 이상 숙면을 취하려고 노력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틈틈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풀기도 했다.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여 시험 직전까지 집중해야 한다는 마음에서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생각은 꾸준한 공부에 원동력이 되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항상 6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려고 노력했는데, 2차 시험 직전에는 공부할 것은 많고 시간이 부족해서 잠을 줄여가며 공부하기도 했어요. 평소에 컨디션을 잘 조절해 왔기 때문에 잠을 줄이는 것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공부했던 것들이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같은 길을 꿈꾸는 동약의 후배들에게

“행정고시를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이 시험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꼭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4학년 때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 일찍 준비를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합격하기도 했구요. 누구나 시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해서 공부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덧붙여 그녀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고시반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하였다. “저는 신림에서 공부를 하다가 학교 고시반에 들어갔는데, 모두 장점이 있어요. 신림에서는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면, 학교에서는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고시반에서는 같이 공부를 하는 친구들끼리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고, 교수님들께서 특강을 해주시기도 하고, 모의 문제 등을 제공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고시공부를 하면서 공무원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말하며 국민들과 소통하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학기를 마치고 연수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영어공부를 할 계획이라는 김성희 양.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그녀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김성희
(법학10)